

## ‘초록 눈의 괴물’, 질투의 심리학적 분석 - 『전경』의 진목과 봉곡을 중심으로 -

김진영\*

### ■ 국문요약

『전경』 공사 3장 14~15절에 언급되고 있는 진목과 봉곡의 비극적 서사는 그간 참혹한 죽음으로 인해 진목이 원을 품고 도통신을 이끌고 이 땅을 떠났으며, 훗날 증산은 해원공사를 통해 이들이 귀환하여 후천선경을 여는 데 역사케 한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현상학적 측면의 연구에서 궤를 달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진목과 봉곡의 심리 분석을 통해 인간의 심상에 뿌리내린 부정적 감정의 씨앗이 세계문명사를 뒤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증산이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의 심리에서 주요 기제인 시기 질투, 분노, 원망과 같은 일련의 감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지 살펴본다.

질투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신이 상처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에 의해 야기된 비탄과 고통, 성공적인 라이벌을 향한 적대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기비판적 감정 등이 혼재한 복합적인 감정이다. 봉곡의 질투는 열등감과 증오, 적의와 분노가 혼재한 극단적이고 병리적인 질투이다. 그의 교만한 심상에 뿌려진 질투는 선천세상에 원이 쌓이듯 미움과 열등감이라는 자양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E-mail: staci21@naver.com

분을 토대 삼아 더욱 커지게 되었다.

결국 봉곡 자신과 진묵 모두의 공멸을 초래했고 나아가 동양문명의 쇠퇴를 가져오는 데 시발점이 된다. 인간의 심상 깊은 곳에서 싹트는 감정의 파동이 나비의 날갯짓을 일으켜 거시적으로 문화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심리 분석은 대순진리의 중심사상인 해원상생에 이르기 위해 ‘원(冤)’의 한 단면을 푸는 데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전경』, 진묵, 봉곡, 심리, 시기 질투, 분노

- I. 머리말
- II. 『전경』 속의 진묵과 봉곡
- III. 질투의 심리학
- IV. 맺음말

## I. 머리말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는 인간의 어두운 속성 중 하나인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이 드라마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로잡혔을 내밀한 감정인 ‘질투’를 ‘초록 눈의 괴물(green-eyed monster)’로 묘사한다. 영국의 대문호가 질투에 눈먼 영욕의 주체를 괴물로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만큼 질투의 감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이나 본성을 완전히 퇴행시켜 질투의 주체와 객체 모두를 파괴하는 부정적 에너지라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리라.

『전경』에도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사로이는 그 사악함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포함하여 광의적으로는 동양문명의 쇠퇴를 불러오게 된 서사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승려 진묵(震默, 1562~1633)과 유학자 봉곡 김동준(鳳谷 金東準, 1575~1661, 이후 봉곡으로 표기)의 일화이다. 진묵은 조선 중기 부처의 ‘소화신(小化身)’으로 추앙받던 명승으로서 천상의 문명을 인세에 펼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의 입적과 관련해 여러 설이 있으나 『전경』은 봉곡으로 인해 참혹하게 소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조선 말 증산 강일순(1871~1909, 이후 증산으로 표기)은 진묵을 해원하여 불교의 종장(宗

長)으로 세우는 공사를 행함으로써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 지상선경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전경』에 진목이 여러 차례 언급된 점을 고려하면, 증산은 당시 숭유척불(崇儒斥佛) 인식에 함몰되어있던 조선 사대부들과는 달리 승려 진목을 천지공사의 한 축으로서 해원의 대상으로 삼았고 또한 문명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 따라서 <대순사상논총>만 놓고 보아도, 진목을 주제 또는 소재로 삼은 연구논문이 2022년 8월 현재 총 23편에 달할 정도로 진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진목이 도동신을 이끌고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파편적으로 동양문양이 쇠퇴하고 서양문명이 부흥<sup>1)</sup>한다거나 설화와 『전경』에 나타나 있는 진목의 서사구조의 차이를 분석<sup>2)</sup>하거나 증산이 행한 진목의 초혼 및 해원공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sup>3)</sup> 즉, 문명을 담당하는 신들을 이끌고 서양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진목의 행위나 세상을 개화하려던 큰 뜻을 포기함으로써 품게 된 ‘원(冤)’의 해소와 관련된 연구들로 원이 만들어지는 인간 심리의 관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기존 연구로부터 시선을 돌려 질투라는 인간 심리를 통해 진목과 봉곡의 관계를 들여다보려 한다. 인간의 심상 깊은 곳에서 짝튼 감정의 파동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거시적으로 문화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심리 분석은 ‘원’의 단면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 1) 안신, 「마테오 리치와 대순사상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의 기독교 종장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해석」, 『대순사상논총』 36 (2020), pp.117-152.
  - 2) 김태수, 「『진목조사유적고』와 『전경』에 나타난 진목 설화의 차이에 대한 재해석: 문헌 전승과 구전 전승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1 (2022), pp.179-217; 이병욱, 「불교와 대순사상에 나타난 진목설화의 차이점」, 『대순사상논총』 29 (2017), pp.141-170.
  - 3) 김탁, 「증산 강일순의 사상에 있어서 해원(解冤) 개념」, 『대순사상논총』 39 (2021), pp.99-136; 고병철, 「해원 개념의 용례와 종교적 전환」, 『대순사상논총』 39 (2021), pp.1-32; 고남식, 「『전경(典經)』 「권지(權智)」편 연구」, 『대순사상논총』 37 (2021), pp.53-105; 유수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신격의 서사적 상상력 탐구: 『봉신연의(封神演義)』의 문중(聞仲)과 『전경』의 강증산(姜鰓山) 서사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5 (2020), pp.255-293 외 다수.

## II. 『전경』 속의 진목과 봉곡

### 1. 시대적 배경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에서 지배층으로서 사대부들이 승명승유사상의 인식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승유억불이 제도적 측면에서 발현되었다고 해도 불교는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무속과 풍수지리 등과 더불어 여전히 조선 민중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특히, 14~15세기 왕권교체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배불의 공론화 및 억불의 가시화가 주된 흐름인 것은 분명했지만 왕실은 불교에 대하여 조선말까지 양가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국태민안의 기원, 민심 무마와 왕권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불교의 활용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도 부모의 왕생과 내세의 복락을 기원하는 불교의 관념과 의례는 여전히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다.<sup>4)</sup>

15세기까지 왕실이나 민간의 불교 의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탄압이나 금지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것과는 별도로, 16세기 연산군과 중종대를 거치면서 불교정책에 대한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sup>5)</sup> 게다가, 조선 중기 두 차례의 전란을 겪은 선조에 이르러서는 전기에 수립된 엄격한 억불승유 정책이 완화되는 등 정책적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승려들이 의승군에 편입되거나 군량미를 수송

4) 김용태, 「조선 불교, 고려 불교의 단절인가 연속인가?」, 『역사비평』 123 (2018), pp.235-257.

5) 중종 초기는 반정 성공 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사림 정치의 초석을 놓은 시기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선교양종 승정체계의 복구, 기신제의 폐지, 『경국대전』의 도승 조의 삭제, 승인호패제의 시행, 『동국여지승람』의 미수록 사찰 철회 등 불교 정책에 대하여 왕실과 신료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불거졌다. 불교사적 관점에서 중종조는 척불정책이 제도화되어 불교가 가장 침체했던 시기로 간주되기도 한다. 손성필, 「조선 중종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2013), pp.42-43.

하는 등 국난 극복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조가 승려의 징집을 왕명으로 규정한 데 따르지만 승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승병활동에 참여했다. 전쟁터로 나가지 않은 승려들도 국가 명령에 의해서든, 자발적이든 산성을 축조 및 보수하고 전쟁 물자를 운송하는 등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다.

전란 복구과정에서 승려들의 호국 의지는 승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소나마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정의 배불정책이나 사대부의 인식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광해군 8년, 서학생(西學生) 박경준이 올린 상소에서는 균역을 피하고자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백성의 양곡을 축낸다고 비판하면서, 중을 죽이려고 해도 “다 죽일 수 없을 정도”라며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sup>6)</sup> 이는 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정 신료들이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승려들을 무위도식, 흑세무민하는 자들로 간주하고 불교에 우호적인 왕실을 견제하였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조선 중기 왕실은 전 시대의 역대 왕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우호적이었으나 신료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승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았다.<sup>7)8)</sup>

정치적으로 유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선에서 불교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문화영역에서는 불교와 유교는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활발하게 교류하고 긴밀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임진왜란 등의 전란은 사회 정치적인 변혁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유교사상에도 균열을 가져왔다. 따라서 많은 사상적 변화가 일어나는

6)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증초본]』 109권, 광해 8년 11월 22일 기축 2번째 기사.

7) 오경후, 「조선 후기 불교정책과 성격연구: 선조의 불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8 (2011), pp.185-189.

8) 조선 후기 일부 지배층에서 불교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드러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비해 양란을 겪은 후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배불상소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일각에서 전쟁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호국정신으로 인해 불교를 포용하고 인정하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수, 「왜란과 호란이후 불교계의 변동추이」,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pp.210-239 참고.

가운데 전통적인 종교에 대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일례로, 조선 후기에는 사상의 경계를 넘어 불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선과 같은 불교식 수행에까지 관심을 갖거나 불교사찰을 유람하면서 승려들과 교류하는 사대부들도 나타났다.<sup>9)</sup>

## 2. 진묵과 봉곡

진묵은 주로 선조와 광해군 때 활동하며 조선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선승이다. 법휘는 일옥(一玉)이며 자호(自號)가 진묵이다. 진북 김제군 만경면 불거촌에서 태어났으며 72세에 전주 봉서사에서 입적했다. 진묵에 관한 신뢰할 만한 공적, 사적 기록이 빈약해서 구체적인 생애는 알 수 없으나 민간설화를 통해 그에 관한 여러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진묵은 민간설화 속에서 바늘로 국수를 만들었다, 함천 해인사에 난 불을 입으로 물을 뱉어 껴다, 어머니를 위해 산신령을 불러 모기를 퇴치했다는 등 주로 신묘한 능력자로 묘사되었다. 또한 스스럼없이 대중과 술을 즐겼고 스스로 천렵을 해서 물고기를 먹기도 하는 등 과거와 다름없는 행적을 일삼는 괴짜승으로도 묘사되었다.<sup>10)11)</sup>

진묵의 불가사의한 행적이 처음 문헌설화로 나타난 것은 1850년(철종 1년) 승려 초의(草衣)가 봉서사(鳳棲寺)에서 간행한 『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考)』이다.<sup>12)</sup> 이 책에 따르면, 봉곡은 진묵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자신의 책을 진묵에게 주면서까지 학문적으로 교류하였고, 진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애석해했다. 말하자면, 두

9) 토마스 성은 김, 「조선후기 유·불이 공유한 문예 문화: 승려와 유교 엘리트의 문화생활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30 (2018), pp.306-307.

10) 김방룡, 「설화를 통해 본 진묵 일옥의 삶과 사상」, 『한국불교학』 44 (2006), pp.319-322.

11) 박윤호, 「진묵 일옥 일화 연구: 유적고를 중심으로」, 『문학/사학/철학』 2 (2005), pp.5-19.

12) 순조 33년(1833) 초의의 제자 각안(覺岸)이 편찬한 『동사열전(東師列傳)』에 기술되어 있는 진묵 관련 내용은 『진묵조사유적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의 관계가 은원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배움의 깊이를 존중하고 흠모하는 사이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진묵 설화를 연구한 한정훈은 그에 관한 설화 대부분이 초의와는 사뭇 다르게 두 사람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묘사했다고 말한다.<sup>13)</sup> 일례로, 인도로 가서 팔만대장경을 가져오려던 진묵의 계획은 봉곡이 유체를 이탈한 그의 몸을 화장해버리면서 영영 불발되었고, 8일 후 돌아온 진묵의 영혼이 봉곡에게 복수하면서 조상 대대로 전해온 옥토를 건담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전경』에 언급된 진묵과 봉곡의 관계도 대립적으로 묘사된다. 즉, 봉곡은 진묵의 서사를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존재로서 시기 질투가 많은 인물로 표현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순종학 연구자는 대체로 진묵에 초점을 맞추고 봉곡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문헌 속에 남아 있는 봉곡은 『전경』의 묘사나 일부 설화에서 전해지는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의 본관은 광산(光山), 초명은 김동기, 자는 이식(而式), 호는 봉곡이며 1617년(광해 10년) 생원시에 합격했다. 동방 18현으로 불리며 기호학과를 형성·확장하는 데 기여했고 예학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생(金長生)에게서 수학했다. 그는 스승을 좇아 예를 통한 덕성의 함양을 강조하였고, “저서로 유고 연역도(演易圖), 『계몽편』, 『의례문해(儀禮問解)』가 있다.”<sup>14)</sup>

인조 때 봉곡은 스승 김장생의 추천으로 의금부도사, 사헌부 감찰 등에 오르기도 했다. 병자호란 때는 인조의 남한산성 피난을 호위했으며, 이후 강화를 반대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향리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전란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수차례 벼슬을 제수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초야 문혀 지냈다고 한다.<sup>15)</sup> 게다가,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인목대비를 유폐할 때도 죽음을

13) 한정훈, 「진묵전설의 구성과 전승 연구」, 『한국문학연구』 50 (2016), pp.161-162.

14) 전라금석문연구회, 『탁본전시회 도록』 (2010), p.23.

1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속 역사인물: 김봉곡(金鳳谷)」, 『대순회보』 87 (2008).



무릅쓰고 반대 상소를 올린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봉곡은 이처럼 『전경』에 묘사된 것과는 달리 위풍당당한 절개 끝은 유학자로서 뛰어난 인품의 소유자였으며 도와 덕의 실천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는 부처의 화신으로 불릴 만큼 걸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던 승려 진묵과 사상적으로 교류했는데,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구세제민에 대한 두 사람의 회통적 세계관이 사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후세의 전주 사람들은 전주의 기린 봉 아래에 인봉서원(麟峰書院)을 짓고 봉곡과 김장생의 문인이었던 최명룡(崔命龍, 1567~1621) 등을 함께 제향하였다.

### Ⅲ. 질투의 심리학

#### 1. 진묵과 봉곡의 심리

전술한 대로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증산 종단에서는 설화로 전해오는 진묵의 비극적 죽음과 두 사람의 대립적 관계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증산 종단 중 최대 종단인 대순진리회 『전경』의 진묵과 봉곡을 중심으로 심리를 분석하고 진묵의 죽음에서 파생된 ‘원’의 해소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다음은 『전경』에 언급된 두 사람과 관련한 일화를 발췌한 것이다.

- 1) … 한 가난한 아전이 진묵과 친한 사이로서 하루는 진묵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니 진묵이 사옥소리(司獄小吏)가 되라고 일러주니 아전은 이는 적은 직책이라 연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그리고 진묵은 밤마다 북두칠성을 하나씩 그 빛을 가두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칠일 만에 모두 숨겨버렸다 하나이다…. (행록 1장 31절)

- 2) 상제께서 정 심백에게 져은 나무 한 짐을 부엌에 지피게 하고 연기를 기선 연통의 그것과 같이 일으키게 하시고 「땃줄을 풀었으니 이제 다시 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자 별안간 방에 있던 종도들이 모두 현기증을 일으켜 혹자는 어지럽고 혹자는 구토하고 나머지 종도는 정신을 잃었도다. … 이것은 무슨 공사인지 아무도 모르나 진묵(震默)의 초혼이란 말이 있도다. (공사 1장 15절)
- 3) … 김 봉곡(金鳳谷)이 시기심이 강한지라. 진묵(震默)은 하루 봉곡으로부터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려 가면서도 봉곡이 반드시 후회하여 곧 사람을 시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 권씩 읽고서는 길가에 버리니 사원동(寺院洞) 입구에서 모두 버리게 되니라. 봉곡은 과연 그 책자를 빌려주고 진묵이 불법을 통달한 자이고 만일 유도(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하여… (공사 3장 14절)
- 4) … 봉곡이 이 사실을 알고 절에 달려가서 진묵을 찾으니 상좌가 출타 중임을 알리니라. … 봉곡은 진묵의 상좌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나뭇더미를 쌓아 놓고 화장하니라. … 진묵이 이것을 알고 돌아와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그러느냐.」 상좌가 자기 스님의 소리를 듣고 울기에 봉곡이 「저것은 요귀(妖鬼)의 소리라. 듣지 말고 손가락뼈 한 마디도 남김없이 잘 태워야 하느니라」고 말하니 진묵이 소리쳐 말하기를 「네가 끝까지 그런다면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동양의 모든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 갔도다. (공사 3장 15절)
- 5) …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권지 2장 37절)

- 6) … 지나간 임진란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 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 달이 넘지 않고, 송 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 (예시 73절)
- 7) …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 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주 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도다. (교운 1장 65절)

1)과 6)의 일화에서 증산은 진묵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참혹한 전란에서 백성을 구하는 진묵의 보국안민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아전의 호구지책을 돕는 모습을 통해 중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채 민중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려는 진묵에게 측은지심을 드러내고 있다. 6)에서 증산은 또한 조선 중기 이후 사림정치 이념을 세운 대표적인 사상가라 할 수 있는 송구봉과 진묵을 비교하면서 진묵의 능력이 한 수 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증산은 자신의 진단으로 인해 선불유의 법방과 법술을 선형적으로 나열하여 구별 짓게 될 것을 경계하였다. 두 사람의 능력 차이는 도력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법술의 측면에서 불법과 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음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2), 5), 7)은 각각 진묵의 해원과 관련한 공사이다. 5)에 따르면, 진묵은 차원 높은 문명을 펼쳐 인세를 개화하려 했으나 봉곡으로 인해 뜻을 펴지 못해 그것이 원이 되어 서양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증산은 그를 해원하고 불교의 종장으로 세움으로써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후천선경을 세우는 데 쓰고자 했다. 이러한 일화들을 요약하자면, 진묵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서원(誓願)했으나 봉곡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증산이 훗날 그의 원을 해소함으로써 조선(한국)이 후천선경의 선도국이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3)과 4)는 진목이 원을 품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두 사람 사이의 주요 심리적 기제는 ‘시기(질투)’지만 다음 <표 1>에서처럼 감정선은 훨씬 폭넓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표 1> 공사 3장 14~15절에 나타난 진목과 봉곡의 주요 감정선 변화

구분	감정	내용
14절	시기	김봉곡이 시기심이 강한지라
	후회	봉곡으로부터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려 가면서도 봉곡이 반드시 후회하여
	시기	만일 유도(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하여
	조롱, 교만, 분노	진목이 그 글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다 버렸다고 대꾸하니 봉곡이 노발대발하는도다.
	시기	그것이 한 자도 틀리지 않으니 봉곡은 더욱더 시기하였도다.
15절	교만	봉곡이 그럼 방에 찾을 것이 있으니 말하면서 방문을 열려는 것을 상좌가 말렸으나 역지로 방문을 열었도다.
	교만, 분노	상좌가 울면서 말렸으며 봉곡은 도리어 꾸짖으며
	원망, 분노	진목이 이것을 알고 돌아와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그러느냐」
	미움(적의), 분노	봉곡이 「저것은 요귀(妖鬼)의 소리라. 듣지 말고 손가락뼈 한 마디도 남김없이 잘 태워야 하느니라」고 말하니
	분노	진목이 소리쳐 말하기를 「네가 끝까지 그런다면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이 14, 15 두 개의 절에서 봉곡이 시기(질투)하였다는 표현은 네 차례나 나온다. 두 사람의 사상적 교유가 서로를 향한 존경과 숭모로 승화되지 못하고 끝내 동·서양의 문명사를 뒤바꿀 만큼 크나큰 원을 짓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학문의 명성에 걸맞은 인격 수양을 이루지 못한 봉곡의 ‘시기심’의 발로라는 것이다. 증산은 선비의 지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학을 숭상한다고 말하는 학자라도 범부(凡夫)와 마찬가지로 시기, 질투, 분노와 같은 파괴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질투가 인간이라면 피할 수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의 종교나 철학 등 사상계는 질투와 관련한 부정적 감

정의 발현을 경계하여 왔다. 기독교 성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잠언 14:30)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야고보서 3:14~16)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중생에 해독을 미치기가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탐욕(貪慾), 진에(瞋恚), 우치(愚癡)를 삼독(三毒)이라고 부른다. 탐욕은 정도를 지나친 욕구를 가리키고, 진에는 분노를 뜻하는 것으로 미움, 시기, 질투까지 포함하며, 우치는 이치와 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마음을 의미한다.<sup>16)</sup> 공맹사상을 체계화한 순자(荀子)는 선비 곁에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있으면 현명한 친구와 사귄 수 없으며 임금 곁에 질투심 많은 신하가 있으면 현명한 신하가 오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sup>17)</sup> 그는 심지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고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sup>18)</sup>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질투는 인간의 원시반본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감정의 벽으로 여겨져 왔다.

끊임없는 탐구의 대상으로서 질투는 문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프로이트(S. Freud, 1856~1939)는 질투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신이 상처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에 야기된 비탄과 고통, 경쟁자를 향한 적대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기비판적 감정 등이 혼재한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규정하였다.<sup>19)</sup> 이외에도 램zey(Ramsay, 1848)는 질투를 두려움과 증오가 투

16) 『불교용어사전』, 「삼독(三毒)」 (<https://studybuddha.tistory.com/130>, 2022. 8. 27. 접속)

17) 『명심보감』 11, 「성심편」, 荀子曰 士有妬友則賢交不親하고 君有妬臣則賢人不至 참고.

18) Daniel Breyer, *Understanding the Dark Side of Human Nature* (Chantilly: The Great Courses, 2019), p.10.

19) S. Freud, “Certain Neurotic Mechanisms in Jealousy, Paranoia and Homosexuality,” In S. Freud, *Collected papers, Journal of Mental Science* 69:287 (1924), published online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출한 감정으로, 데이비스(Davis, 1936)는 두려움과 분노로, 아놀드(Arnold, 1960)는 두려움, 분노, 애정이 혼재한 다소 양가적 감정으로 간주한다. 또한 클라인과 리비에르(Klein & Riviere, 1964)는 증오와 공격성의 속성을, 포돌스키(Podolsky, 1961)는 공격성, 실망, 부러움의 감정의 복합체로 질투를 설명했다.<sup>20)</sup> 이처럼 많은 학자가 질투를 여러 속성이 혼재하고 있는 감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파괴적 성격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전경』 공사 14~15절로 돌아가 보자. 질투에 눈이 먼 봉곡은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겼던 진목이 자신의 명성과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위계질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곧 증오로 변하여 자기애적 분노와 적대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질투는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 또는 부정의 변증법적으로 전화하는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질투, 부러움, 교만, 그리고 정당화

‘나’와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을 격렬하게 질투할 수 있을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에 관한 뉴스를 매시간 보고 듣는다.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을 갖게 된 억세게 운 좋은 복권 당첨자, 어디를 가나 찬사와 환호가 뒤따르는 인기연예인, 수능 전국최고 득점자, 자자손손 대를 이은 재벌, 심지어 미인대회 입상자 등 대중은 이런 범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람들을 부러워할까? 질투할까? 아니면 둘 다일까?

이탈리아 고전주의 작곡가 살리에리(Antonio Salieri)는 자신을 모

20) 19~20세기 여러 학자들의 질투에 대한 규정은 Ralph B. Hupka, “Jealousy: Compound Emotion or Label for a Particular Situation?,” *Motivation and Emotion* 8:2 (1984), p.141-142 재인용.

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와 비교하면서 그의 천재적인 음악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열등감과 질투에 휩싸였다. 비교는 그에게 매우 파괴적인 질투를 유발하게 만든 촉매제와 다름없었다. 그의 모차르트에 대한 감정은 처음에는 부러움에서 시작해 질투로 바뀌고 질투는 이내 적의로 전화(轉化)했다. 그리고는 적의가 최고조에 다다르자,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적으로 규정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sup>21)</sup> 봉곡의 진묵에 대한 감정도 살리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 승려의 평판이 개선되고 유학자들 사이에서 고승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봉곡이 처음에는 진묵에게 적의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봉곡은 진묵과 교분을 쌓아가면서 내심 진묵의 학문적 깊이에 감탄하고 부러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러움은 어느새 질투와 적대감으로 바뀌어 버렸다.

질투는 부러움과는 달리 경쟁자와 비교해 자신의 상황이 비슷하거나 우월하다고 여길 때 일어난다.<sup>22)</sup>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은 빌 게이츠의 엄청난 부(wealth)를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도달하기에는 사회적 격차가 너무나 커 그를 향한 질투의 감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나 유재석의 현란한 말솜씨를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재능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러움과 질투는 이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지만 어떤 한 개인을 향해 열등감이 개입하지 않는 한 부러움의 감정이 생길 수는 있어도 질투의 감정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수사학(The Rhetoric)』에서 부러움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선량한 부러움은 존경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부정적 형태로써 질투로 이어질 때에는 타인의 행운 또는 행복이 고통이

---

21) Lillemor Adrianson and Neila Ramdhani, "Why you and not me? Expressions of Envy in Sweden and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Psychology* 3 (2014), pp.1-23.

22) A. Ben-Ze'ev, "Envy and Jealous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0:4 (1990), pp.487-490.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sup> 유사한 맥락에서 존 로울스(John Rawls)는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할 때 드러나는 데 비해 부러움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갖고 싶을 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sup>24)</sup> 부러움에서 시작한 봉곡의 감정은 조선 사회에서 천시받던 승려 진묵으로 인해 유학자로서 자신의 명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전치되면서 진묵에 대한 부러움은 질투의 감정을 움트게 하였다.

‘적의(enmity)’ 또는 ‘원한(rancor)’은 부러움의 대상이 해코지 당하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내재된 감정이다. 엡스타인(Epstein)에 의하면, 적의는 유·무형의 욕망의 대상이 자신에게서 이탈할 때 느끼는 좌절감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의의 뿌리는 부러움이다.<sup>25)</sup> 따라서 봉곡은 당시만 해도 종교로서 공인조차 받지 못한 불교의 보잘것없는 승려 진묵이 정통 유학자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재능과 학문적 소양을 갖춘 것에 좌절감을 느꼈고, 이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적의’의 감정을 키워내고 있었다. 결국, 도덕과 이성이 뒤떨리며 봉곡의 질투는 파괴적인 적의로 전이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공멸의 길로 내몰았다.

진묵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승려로서, 학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점이 그가 해탈에 이를 정도로 완벽한 인품을 지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몸으로 사는 이상 그 누구도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4절에서는 사대부를 거침없이 조롱하고 15절에서는 자신의 뜻을 좌절시킨 봉곡에 대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며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데 이런 진묵의

23) S.E. Hill and D.M. Buss, “The Evolutionary Psychology of Envy,” In R. H. Smith (Ed.), *Env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60-70.

24) Domina Petric, “Envy vs. Jealousy,” *The Knot Theory of Mind Project*, reprint (2019), p.3.

25) Joseph Epstein, *Envy: The Seven Deadly Sins* (New York Public Library Lectures in Human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1st edition), (2003).



행동 기저에는 놀랍게도 교만(hubris)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타인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규정한다.<sup>26)</sup> 심리학적으로 교만은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을 과장하는 데서 비롯되거나 객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과시할 때 나타나며, 극단적으로는 우월감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하고자 할 때 나타나기도 한다.<sup>27)28)29)</sup> 어떤 목적 또는 이유에서 발생하든, 교만은 개인의 정신적, 학문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목이 봉곡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결국, 봉곡이 수치심과 분노라는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된 데에는 진목의 교만도 일정 역할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모욕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김으로써 자기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sup>30)</sup> 진목의 교만은 봉곡이 평생을 정진하며 추구했던 유교적 세계관에 대한 조롱이나 모멸적 행위로 여겨져 더 큰 분노를 야기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심리적 고통이 해소되지 못하고 봉곡에게 복수의 정당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진목에게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며 또 다른 부정적 감정으로서 원망을 잉태케 했다. 그리고 이 원망은 봉곡의 자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양의 도통신을 서양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었다.

---

26) Nelson Cowan et al., “Foundations of Arrogance: A Broad Survey and Framework for Research,”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4 (2019), p.432.

27) *Ibid.*, p.433.

28) K.L. Lockhart et. al., “Overoptimism about future knowledge: Early arrogan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1 (2017), pp.36-46.

29) R.E. Johnson, “Acting superior but actually inferior?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Workplace Arrogance,” *Human Performance* 23 (2010), pp.403-427.

30) Danilo Manca, “Shades of Schadenfreude, a Phenomenological Account of Pleasure at another’s Misfortune,” *Humana. Mente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35 (2019), pp.222-248.

## IV. 맺음말

질투의 감정에 휩싸여 번뇌에 빠지는 것이 인간만이 겪는 숙명일까? 다윈(Charles Darwin)이 곤충조차도 울음소리로 분노, 공포, 질투, 사랑을 표현한다고 주장<sup>31)</sup>할 정도이니, 질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듯하다. 서양에는 ‘양동이 속 게 증후군(crab-bucket syndrome)’이라고 하는 병리적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있다. 게는 습성상 양동리와 같은 오픈된 공간에 두어도 한 마리도 양동이를 탈출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잡힌 채로 있다고 한다. 이유는 어느 한 마리가 양동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게들이 마치 시기라도 하듯 집게발을 걸고 넘어뜨려 결국 모조리 인간의 밥상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시기와 질투가 공멸로 이르게 하는 원의 단초인 것은 틀림없다.

독일어 단어 샤덴프로이데(Shadenfreude: shaden 손해, freude 기쁨)는 질투가 얼마나 모순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을 내재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낸다. 타인의 불행이 내게 곧 기쁨이라는 뜻이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 속담을 바로 떠올리게 한다. 불행하게도 봉곡의 심리에서 포착된 질투는 먹이나 사랑을 놓고 벌이는 본능적인 질투 또는 단순히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남이 나보다 성공하는 듯해 일어나는 질투가 아니라 열등감과 증오, 적의와 분노가 혼재한 극단적이고 병리적인 질투였다. 그의 심상에 뿌려진 질투의 씨앗은 선천세상에 원이 쌓이듯 미움과 열등감을 자양분 삼아 더욱 커지게 되었고, 결국 자신과 진목 모두의 공멸을 초래했다.

『전경』의 묘사에서 특히 더 주목할 것은 진목이 동양의 도통신을 이끌고 서양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대목이다. 봉곡의 질투는 결과적으

31) Ralph Adolphs and David Anderson, “Chapter 7. Emotions in Insects and Other Invertebrates,” *The Neuroscience of Emotion: A New Synthe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pp.197-214.

로 동양문명이 눈부시게 개화할 기회를 앗아가 버렸고, 이에 반해 서양은 르네상스를 거쳐 진일보한 과학기술로 무장한 채 나날이 동양과의 문화적 격차를 벌려 나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봉국의 질투가 진목의 교만과 충돌하면서 도통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동양문명의 발전은 최소한 수백 년이 늦춰졌다. 그런 가운데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한 국가 제도와 부패한 권력 하에 고통받았고, 마침내는 서양 식민지의 삼등 시민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후천개벽을 여는 원시반본의 시대를 맞아 단 한 사람의 질투가 다른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상황의 조력 아래 원을 짝트게 하고 결국 세계문명사를 뒤바꾸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비록 『전경』 내에서 봉국과 진목의 심리를 명징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일지라도, 이 연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현상을 통해 ‘원’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다른 연구자들의 심리 분석에 기초한 보다 진일보한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명심보감』
-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109권.
- 고남식, 「『전경(典經)』 「권지(權智)」편 연구」, 『대순사상논총』 37, 2021.
- 고병철, 「해원 개념의 용례와 종교적 전환」, 『대순사상논총』 39, 2021.
- 김 탁, 「증산 강일순의 사상에 있어서 해원(解冤) 개념」, 『대순사상논총』 39, 2021.
- 김태수, 「『진목조사유적고』와 『전경』에 나타난 진목 설화의 차이에 대한 재해석: 문헌 전승과 구전 전승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1, 2022.
- 김방룡, 「설화를 통해 본 진목 일옥의 삶과 사상」, 『한국불교학』 44, 2006.
- 김용태, 「조선 불교, 고려 불교의 단절인가 연속인가?」, 『역사비평』 123, 2018.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속 역사인물: 김봉곡(金鳳谷)」, 『대순회보』 87, 2008.
- 박윤호, 「진목 일옥 일화 연구: 유적고를 중심으로」, 『문학/사학/철학』 2, 2005.
- 손성필, 「조선 중종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2013.
- 안 신, 「마테오 리치와 대순사상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의 기독교 종장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해석」, 『대순사상논총』 36, 2020.
- 오경후, 「조선후기 불교정책과 성격연구: 선조의 불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8, 2011.
- 유수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신격의 서사적 상상력 탐구: 『봉신연의(封神演義)』의 문중(聞仲)과 『전경』의 강증산(姜甌山) 서사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5, 2020.

- 이병욱, 「불교와 대순사상에 나타난 진묵설화의 차이점」, 『대순사상논총』 29, 2017.
- 이종수, 「왜란과 호란이후 불교계의 변동추이」,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전라금석문연구회, 『탁본전시회 도록』, 2010.
- 토마스 성은 김, 「조선후기 유·불이 공유한 문예 문화: 승려와 유교 엘리트의 문화생활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30, 2018.
- 한정훈, 「진묵전설의 구성과 전승 연구」, 『한국문학연구』 50, 2016.
- A. Ben-Ze'ev, "Envy and Jealous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0:4, 1990.
- Daniel Breyer, *Understanding the Dark Side of Human Nature*, Chantilly: The Great Courses, 2019.
- Danilo Manca, "Shades of Schadenfreude, a Phenomenological Account of Pleasure at Another's Misfortune," *Humana. Mente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35, 2019.
- Domina Petric, "Envy vs. Jealousy," *The Knot Theory of Mind Project*, reprint, 2019.
- Joseph Epstein, *Envy: The Seven Deadly Sins* (New York Public Library Lectures in Human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1st edition, 2003.
- K.L. Lockhart et. al., "Overoptimism about Future Knowledge: Early Arrogan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1, 2017.
- Lillemor Adrianson and Neila Ramdhani, "Why You and Not Me? Expressions of Envy in Sweden and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Psychology* 3, 2014.
- Nelson Cowan, Eryn J. Adams, Sabrina Bhangal et al. "Foundations of Arrogance: a Broad Survey and Framework for Research,"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4, 2019.
- R.E. Johnson, "Acting Superior but Actually Inferior?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Workplace Arrogance," *Human Performance* 23, 2010.

- Ralph Adolphs and David Anderson, “Chapter 7. Emotions in Insects and Other Invertebrates,” *The Neuroscience of Emotion: A New Synthe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 Ralph B. Hupka, “Jealousy: Compound Emotion or Label for a Particular Situation?,” *Motivation and Emotion* 8:2, 1984.
- S.E. Hill and D.M. Buss, “The Evolutionary Psychology of Envy,” In R. H. Smith (Ed.) *Env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S. Freud, “Certain Neurotic Mechanisms in Jealousy, Paranoia and Homosexuality,” In S. Freud, Collected papers, *Journal of Mental Science* 69:287. 1923, published online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불교용어사전』, 「삼독(三毒)」, <https://studybuddha.tistory.com/130> (2022. 8. 27. 접속)

■ Abstract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Jealousy, the  
Green-eyed Monster: Focused on Jin-Muk and  
Bonggok in *The Canonical Scripture***

**Kim Jin-young**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 Cont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tragic narrative of Jin-Muk and Bonggok described in Chapter 3:14~15 in the Reordering Works of *The Canonical Scripture* focuses on the story in which Jin-Muk conceiving grievances due to his horrendous death led the gods of the enlightenment of the Dao and moved to the West. In addition, later, Jeung-san had them come back to Korea through the grievance-resolution and participate in the opening of the Later World. On the contrary to this phenomenological research,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sychological analysis wherein a negative emotion which is so influential that it has rooted in human mind has changed the world history of civilization. Furthermore, Through the eye of Jeung-san, we look into the psychology of those two people, such as jealousy, anger, and resentment and apprehend how they manifest.

Jealousy is a complex feeling that includes the feelings of grief

and pain caused by the feeling of loss that one might lose what one loves, the enmity towards one's successful rival, and one's self-critical feeling and so on. Bonggok's jealousy is an extreme and psychopathological emotion that combines enmity and anger.

The jealousy that has spread in his arrogant mind has grown by the help of hatred and inferiority as the grievances have been accumulated in the Former World. At last, he ended up with the co-destruction of Jin-Muk and himself. Furthermore, his jealousy led to the declination of the Eastern civilization. A butterfly fluttered its wings over a flower in human mind and caused enormous change in culture in a broad sense. In this context,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two people will provide an alternative view in interpreting a dimension of grievance so as to achieve resolution of grievance for mutual beneficence.

**Keywords:** *The Canonical Scripture*, Jin-Muk, Bonggok, psychology, jealousy, anger